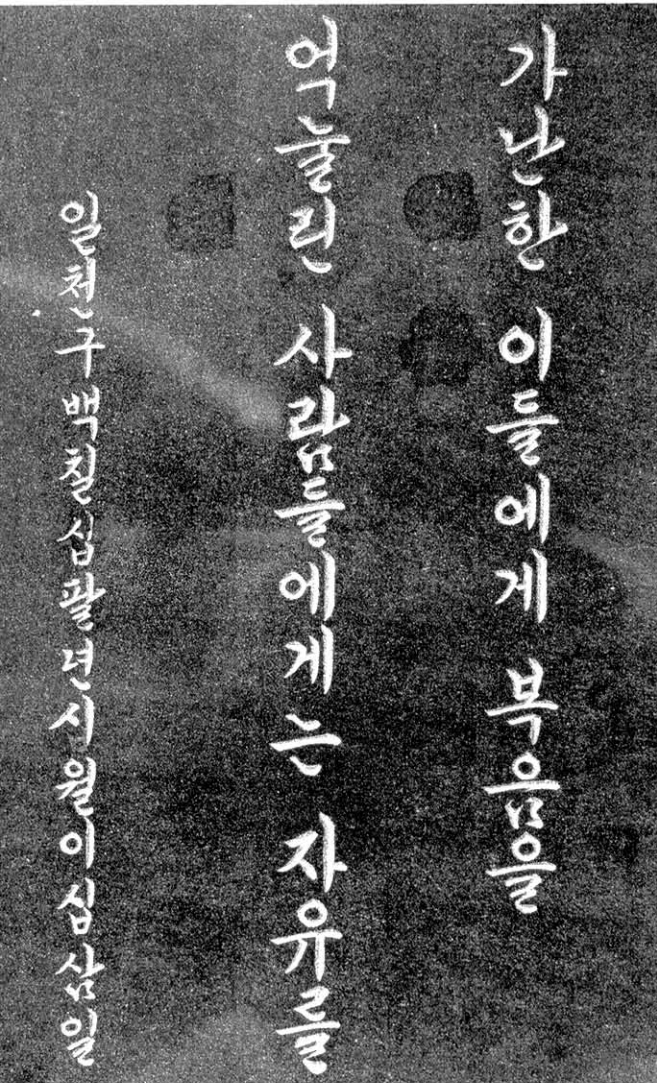


# 소외된 노동자들의 벗,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한 도시산업선교회와 성문밖교회

원시림 (소설가)



현관 머릿돌에 적힌 성경 구절

우리 현대사는 비상식적인 일의 반복이 상식인 것처럼 잔뜩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른바 신세대로 지칭되는 필자의 세대가 보기에 과거의 어느 때는 낯설고 생경해서 마치 동화 속의 일 인양 느껴지기까지 한

다. 수십 년 동안의 군사독재가 인권과 자유를 유린했다거나, 거대재벌과 정치권의 야합이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어 민생고를 가중시켰다거나 하는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2교대를 하거나, '타이밍'을 먹어가며 철야를 하거나, 각종 직업병으로 나이 어린 소녀들이 시들시들 말라가며 수출고를 채우던 시절의 어이없는 착취라니……. 그건 마치 계모 슬하에서 설움을 당하는 콩쥐나 신데렐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뻔히 보이는 이야기인데도 약자라는 이유로 늘상 착한 주인공만 폄박을 받는 동화 말이다. 왜 정해진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주지 않는지, 휴가와 퇴직금은 왜 챙겨 주지 않는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왜 치료도 해주지 않고 내쫓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작업 시간과 최저임금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불과 삼십 년 전에 벌어졌던 산업현장의 이야기가 생경하게 느껴지는 건 그 동안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왔기 때문일 터. 672쪽짜리 두툼한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를 읽는 동안, 그리고 이제 공장이 아닌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성문밖교회'를 답사하는 동안 필자는 마치 판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비상식의 세상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도시산업선교회 목회자들의 노력과 가열 찬 투쟁의 성과물은 차근차근 노동조건을 개선해 불려왔다. 그러므로 산업선교회의 역사가 곧 한국의 노동운동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거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나 상속세 탈루, 그리고 과도한 노조 탄압으로 노조원이 분신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최근에도 노사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은밀해진 것이 저들 가진 자들의 치부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운동사에 새 바람을 일으켜 오늘날의 노동조건을 이룩한 데는 도시산업선교회, 특히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미 본지 창간준비호에서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다룬 바 있거니와, 그 이후 노동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역사와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한다.

###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국 산업선교의 역사는 공업화가 본격화한 1950년대 후반, 공장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기계·화학·섬유공업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영등포 일대는 당시 최대 공업단지로서의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초기 산업전도운동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공장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순박한 전도열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한다. 1957년 3월에 한국을 방문한 존스 목사(Rev. Henry D. Jones)의 권유와, 4월 12일 예장총회 전도부위원회가 '예장 산업전도위원회'를 두도록 결의(9월 총회에서 인준)하고, 이듬 해인 1958년 4월 19일에 영등포지구 산업전도위원회를 창립한 것은 영등포산업선교회의 효시가 되었다(초대회장 계호언 목사, 실무자 강경구 전도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한복음 5장 17절)"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동에 대한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홈페이지(www.ydpuim.org)에서 분류한 약사를 참고하면 산업선교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해 먼저 소개한다.

- 1) 공장목회로서 산업전도(1958~1963) 2) 평신도를 통한 산업전도(~1967)
- 3) 노동조합을 통한 도시산업선교(~1972.10.)
- 4) 소그룹운동으로서의 산업선교(~1979)
- 5) 산업선교에 대한 탄압과 수호(~1982) 6) 노동운동의 발전에 밀거름이 된 산업선교(~1987) 7) 노동운동의 지원과 기독교노동운동의 산실로서 산업선교(~1992)
- 8) 노동선교공동체를 만드는 산업선교(~1999) 9) 21

세기 노동선교의 새 꽃씨를 뿌리는 산업선교(2000년 이후 현재)

1962년 부임해 한국 최초의 산업전도 목사가 된 조지송 목사(73)를 비롯한 영등포지구 산업전도위원회는 평신도를 교육하여 그들이 스스로 산업전도에 나서게 한다는 취지로 65년부터 평신도 중심의 산업전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후 노동자 교육 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조지송 목사는 탄광, 철광, 섬유공장 등지에서 노동자의 삶을 직접 체험한 후에 영등포에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체험은 지금껏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부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전통으로 남았다. 1999년부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진석 목사(48)에 따르면 "현재에도 공장노동과 이론학습을 각각 6개월씩 받고 1년간의 실습을 거치



예배당 십자가 좌우로 2003년 성문밖교회 표어가 붙어 있다.



며, 부임한 후에도 매년 2~3명씩 교대로 훈련에 참가한다”는 설명이다.

1970년대 이후 영등포산업선교회 활동을 주도한 인명진 목사(58, 현재 '갈릴리교회'에서 목회)는 노동현장 체험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역시 1972년 비누공장에서 1년간 위장취업을 했다고 한다. “‘전태일의 분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눈을 뜬 거지요. 사실 그들의 삶이란,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법과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소망을 품어보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의 산업선교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들이 화낼 때 같이 화내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함께 따르는 것뿐입니다. 당시 정권이 우리를 분석하고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 빨갱이로 몰아붙인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1968년 이전까지 사용되던 '산업전도(Industrial Evangelism)'라는 용어가 '산업선교(Urban Industrial Mission ; UIM)'로 바뀐 것과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실무자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한 것은 산업선교회 역할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것일 터.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당하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조직하는 일이 산업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된 것이다. 1971년 있었던 '김진수 사건'을 통해서 산업선교회는 노동조합 상층부나 한국노총 간부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는 영등포산업선교회가 노동자들의 현실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튼 노동자들과 영등포산업선교회는 국가보위법을 제정하여 단행동권과 교섭권을 크게 제약한 뒤, 1972년에 10월 유신을 단행한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이 땅의 노동운동을 쉼 없이 시작해왔다.

### 해태제과 8시간 노동투쟁, YH사건, 콘트롤데이터 사건

1970년대 노동자들은 '소그룹 운동'을 통해 차츰 의식화가 되어갔다. '의식화'란 지식을 습득해 알게 되는 것뿐 아니라 가슴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전까지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들이 점차 눈뜨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삶을 나누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에 13년간 몸담았던 인명진 목사는 매달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만나 근로조건이나 사회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주느라 하루 스물네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양처럼 순박하기만 하던 노동자들도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분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우린 사측에 월급 올려달란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정해진 월급을 왜 안 주느냐고 항의했을 뿐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칭찬을 하지만, 가난의 구조에 대해 문제를 삼을라치면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구조적인 모순 아닐까요?”

당시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소그룹 활동에 자극되어 일어난 노동운동은 수 없이 많고, 모두 노동운동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모방 강제예배 반대투쟁(73년), 노조개편을 시도한 남영나일론 투쟁(76

년), 방립방적 체불임금 요구 투쟁(77년)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을 꼽자면 '해태제과 8시간 노동투쟁(75-80년)'과 'YH무역 신민당사 점거농성 사건(79년)'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해태제과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사상 최초로 노동자의 투쟁에 의한 8시간 노동제 실시'라는 기록과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치밀한 준비와 도움으로 75년부터 계획되고 추진된 지 6년만에 결실을 본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소그룹-의식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결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70년 이래 매년 5월 1일을 기하여 1일 8시간 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한 것이 '노동절'의 유례가 되었을 만큼, 노동자의 손으로 '8시간 노동' 투쟁의 승리를 일궈낸 것은 그만큼 값진 소득이었으리라.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제3자개입금지법'이 생겼다고 하니,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역할과 힘이 지대했음에 대한 반증일 터이다.

YH사건은 가발 수출회사였던 YH무역 사장이 회사의 이익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후 회사를 불법적으로 폐업하려 한 데 대해 노동조합이 저지투쟁으로 맞선 데서 촉발된 사건이었다. 당시 '신민당사 점거 농성'은 인명진 목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1972년 원풍모방의 명동성당 점거농성에서 착안한 것이라 한다. 그때까지 노동 문제에 대해 한 마디의 보도도 못하던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해서 이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노동권이 정치세력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역시 노동자들과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은 영등포산업선교회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이 촉발되었고 결국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몰락(10·26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광릉에서 크낙새가 죽은 것은 보도가 되어도 노동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가 될 수 없었던 당시의 방송행태를 볼 때, 이 사건은 노동운동을 사회 일반에 알리는 신호탄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은 언론보도 불가방침으로 일관했던 박정희 정권과

평산연제 호

## 노동주일축하예배의건

1965년 3월 14일 (월)  
 회장 김동태  
 종교부장 전광익  
 인민교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절 주일을 맞이 하여 본회 예사는 아래와 같이 축하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선전 하시어 많은 종업원들이 참석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

시일: 1965년 3월 14일 오후 3시

장소: 영등포 교회 (장로교회 시장노타리 예시 김포행 약 200메타 지점 오른쪽)

실고 하시는 분과 특별 음악순서는 초대권과 같습니다

대리회 감사



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도산(都産: '도시산업선교회'의 줄임말)이 들어가면 도산(倒産)한다”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인 '산업선교회 타도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1982년 7월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콘트롤 데이터'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당시 미대사관의 “한국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콘트롤데이터사로부터 통보 받았다”라는 발표를 보더라도, 전두환 정권은 도시산업선교회를 용공세력으로 몰아 노동자 탄압을 위한 기재로 악용했던 것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소속 '성문밖교회'

전두환 정권의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대한 악선전은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에 버금가는 것이어서 늘 정부의 감시와 폭력적 탄압 속에 있어야만 했다. 1983년 1월 9일에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영등포노동교회'에서 '성문밖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였다. 이는 히브리서



197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인명진 목사  
 지하 세미나실은 지금도 노래를 배우거나 만드는 장소로 이용된다. 백진석 목사는 1999년부터 총무로 봉사하고 있다.  
 성문밖교회 1층에는 사무실, 편집실, 식당 등이 있다. 한쪽에는 “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경구가 붙어있다.  
 70~80년대 당시 사용하던 풍금이 예배당 한켠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

12:12~13에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밖에 계신 그 분께 나아가서 그 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라는 성구에서 따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성문밖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며 엄혹한 시절 노동자들의 인식처가 되었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기까지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유일한 노동운동의 열린 공간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소속의 ‘성문밖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의 옛날 그 자리에 여전하다. 옛날 도금공장(남쪽), 국회의사당(북), 영등포역과 작은 주택가(동), 해대·롯데제과 등 공장지대(서)로 둘러싸여 있던 것에서 이제 대단위 아파트 단지위 상가에 가려 낡은 4층짜리 건물로 남았지만 하는 일은 늘 한결같다. 현재 근무자는 목사 4명, 평신도 5명, 호

주인 선교사 1명으로 총 10명인데, 조직교육과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한다. 과거 노동운동 때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져 IMF 이후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직업 훈련을 시키는 일과 ‘노숙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비정규직과 청소년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 등이 주된 업무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박진석 목사는 “사회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현실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봉사할 곳을 찾아야 한다”며 교회 이곳저곳을 소개한다.

현관 기둥 낡은 동판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이라는 ‘누가복음 4장’ 구절을 비롯해 교회 곳곳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경구가 붙어 있다. 과거 풍물패의 연습장소였던 지하 세미나실은 현재에도 노래를 만들거나 노동가요를 배우는 장소로 이용된다고 한다. 1980년대 치과진료 장소로 이용됐다는 ‘희망 나눔방’은 현재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고, 1층의 다른 공간에는 식당, 편집실, 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



4층 자료실 내부 : 민중선교 교양자료, 노동자 글, 각종 포스터, 노동상담소 서류와 노동조합 관계법률 등을 보관하고 있다.

다. 1층에서 3층까지의 계단 옆 벽면에는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저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즐겁다. 모처럼 살아 있는 민주화유적지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건물만 텅그머니 남았거나, 거대한 구조물로 치장한 기념물들에 비한다면 퇴락한 건물일망정 민주화유적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일 터.

2층에는 '큰 사랑방'과 '사랑1·2·3방'이라 이름 붙은 방 4개가 있다. 큰 사랑방은 전에 '원탁회의방'으로 이용되었다는데, 지금은 방 4개가 모두 노숙자들의 숙소로 이용된다. 노숙자들은 밤이 되면 들어와 쉬고,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 이어 3층으로 올라가면 예배당이 있다. 4층 한켠에 자리잡은 자료실 공간을 제하면 여느 예배당처럼 높이가 띄어있지만, 무척 소박해 보이는 공간이다. 전에는 300~500여 노동자들이 바짝 붙어앉아 예배를 보았다고 하나, 지금은 60여 개의 의자만 놓였을 뿐이다. 앞쪽 십자가 좌우로

는 2003년 성문밖교회 표어가 붙어 있다. "말씀과 삶이 만나는 공동체",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문화를 창조하는 해". 뭐랄까, 엄숙한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시집살이하던 새댁이 다리 뻗고 눕기 좋은 친정집 안방 같은 공간이랄까? 주일날이면 옛날에 활동했던 노동자들이 식구들을 이끌고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온다니, 아주 틀린 느낌은 아닌 모양이다.

노동현장은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성문밖교회보다 규모가 더 커져서 더 이상 가르치거나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닌 거대단위 노동조합이 많아졌지만, 한국 노동운동의 '생명수'가 영등포산업선교회였다는 사실에 이견을 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산 증인인 성문밖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변함없이 굳건했음을 확인하는 마음은 기쁘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원시림

소설가, 1972년 충북 제천 출생, 19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와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발표작으로 「기동」, 「용꿈」, 「믹스인매치」 등이 있음. wonsilim@korea.com